

2026년 제1차 주요 20개국(G20) 재무차관·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

- 2026년 G20 의장국인 미국 주최 첫 번째 회의(12.15~16일 워싱턴 D.C)
- 국제경제관리관, 주요 세션 발언을 통해 경제성장, 부채 문제 등 논의 예정

2026년도 주요 20개국(G20) 재무분야 첫 번째 회의로서 제1차 G20 재무차관·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.15(월)~16(화), 미국 워싱턴 D.C에서 개최된다. 이번 회의는 새로운 G20 의장국 미국이 개최하는 첫 회의로, ‘경제 성장, 규제완화 및 풍부한 에너지’라는 상위 목표 하에서 내년 G20 재무분야의 주요 의제 및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.

※ 의장국은 직전년도 12월부터 1년간 G20 회의 주관(‘25년: 남아공, ‘26년: 미국, ‘27년: 영국)

기획재정부 대표단(수석대표: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)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세션별 발언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.

기획재정부는 「경제성장」 세션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AI 대전환, 초 혁신경제 등 성장 촉진방안을 공유하고, 「불균형」 세션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과도한 경상수지의 흑자·적자 지속의 원인 분석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, 건설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「디지털 자산」 세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규제 정합성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고, 「금융 문해력」 세션에서는 한국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및 소득 형성, 전 국민 경제·금융교육 강화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. 이어, 「부채」 세션에서는 저소득국 부채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투명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.

한편, 2026년도 G20 회의는 이번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재무차관·장관회의(2월 차관회의, 4·8·10월 장관회의)와 한 차례 정상회의(12.14~15일, 미국 마이애미)가 예정되어 있다.

※ (참고) 2026년 G20 주요 회의 일정(잠정)

구 분	회 의 명	일 자	장 소
'25.12월	G20 재무차관회의	12.15(월)~16(화)	미국 워싱턴 D.C
'26.2월	G20 재무차관회의	2.17(화)~18(수)	미국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
4월	G20 재무장관회의	4.15(수)~16(목)	미국 워싱턴 D.C
8월	G20 재무장관회의	날짜 미정	장소 미정
10월	G20 재무장관회의	10.14(수)~15(목)	태국 방콕
12월	G20 정상회의	12.14(월)~15(화)	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

담당 부서	국제 금융국 다자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재우 (044-215-48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창선 (dje9350@korea.kr)
			사무관	오승훈 (ohsh95@korea.kr)
			사무관	원종혁 (gur2794@korea.kr)